뻥 뚫린 귀경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귀경 행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김제시 금산사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다. 〈헬기 조종＝광주소방항공대 박창순 대장, 문연식 부기장〉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自私高에 공립교사 파견 특혜논란

광주시교육청, 주요 과목 교사 7명 맞교환 형식

외고 지정철회, 특목고·자사고 감독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반대해온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자사고의 '교원 물갈이'를 위해 공립교사를 파견키로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공립교사를 파견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서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를 공립교로 동수 맞교환해주기로 한것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자사고로 지정돼 학력을 높이려는 학교가 자체 우수 교원을 뭣하러 공립에 내보내겠느냐 의문 때문이다.

또 대부분 고령교사 적체로 고민하고있는 대다수 사립고교들도 이는 특정 사학에 대한 전례없는 특혜라며 의아해 하고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3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광주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에 파견할 교사를 공모 중이다. 교육청은 수학과 영어 2명, 국어·화학·생물 등 모두 7명의 교사를 보문고에 보내고, 학교로부터 해당 과목 교사를 받는 1대1 교환방식이다.

보문고는 파견교사에게 기본급 50%에 달하는 특별수당과 해외연수, 3년 뒤 원적 복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지원조치가 공교육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ID '교사'는 장휘국 교육감의 홈페이지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능력있고 유능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문고의 요구 때문에 파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공립고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더구나 현재 보문고는 인사교류의 전제가 되는 과원교사가 없는 상태여서 교육청이 굳이 파견형식을 빌어 교사를 보내는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사학이 교원의 노령화 해소와 과원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특정학교에 혜택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사고·특목고에 반대해 보편교육을 표방하는 교육청이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보문고의 교사정원을 따져본 결과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인사교류 원칙에 어긋나 애초 전면 백지화할 방침이었다"며 "해당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아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큰 데다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돼 적법한 범위내에서 파견 근무형식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구제역·AI 여파에도…

호남 귀성객 10% 늘었다

고속도 이용車 95만4천대

구제역도 AI도 출향민들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막지는 못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귀성 자제' 당부 속에서도 이번 설 연휴동안 호남지역의 귀성·귀경 차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광주, 전남·북지역 고속도로 영업소 27곳을 빠져나간 교통량은 총 95만417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86만1256대)보다 10.8%(9만2922대) 늘어난 것으로, 구제역과 AI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길은 되레 증가했다.

이처럼 귀성 차량이 늘어난 것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최장 9일간으로 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긴 연휴로 인해 교통량이 분산된 것도 귀성 차량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방역 당국과 지자체 등은 설을 앞두고 구제역 방지를 위해 출향민들의 '귀성 자제'를 호소했으며,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방역활동을 벌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체된 전남교육청 교육발전기획단

이름만 바꿔 '옥상옥' 부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말 해체했던 교육발전기획단을 흡수, 위상을 한층 강화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운영키로 해 공조직 무력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전남교육발전기획단 소속 교사 등 6명을 재배치하고 담당관 직위를 전문직으로 바꾸는 등 조직을 강화할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직(일반직)이 맡았던 정책기획담당관 직위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전문직)과 맞교환 형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정책기획담당관의 위상이 강화된 데다 공약추진, 제도 개선 등 기존 업무에 학교혁신, 교직원 개혁, 인사업무까지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조직내 갈등, 공조직 무력화 등이 우려된다.

또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지난해말 해체된 교육발전기획단 소속 전교조 출신 평교사 4명 등 6명을 흡수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시기구로 운영되면서 '옥상옥과 월권논란' 등을 가져왔던 기획단이 사실상 정책기획담당관 아래로 다시 뭉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획단이 해체되자 팀 형식으로 교육청 각 실과에서 근무 중이었다.

한편, 전남교육청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정책개발담당에 대한 공모공고를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낸데다 접수기간도 연휴를 포함해 1주일에 불과, 졸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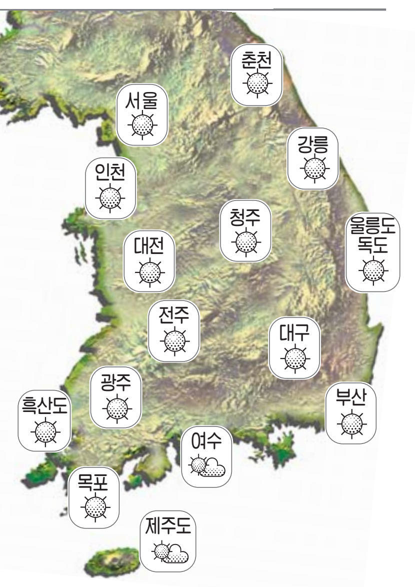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7분	달뜸	09시 06분
해짐	18시 06분	달짐	22시 02분

출근길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11℃
목 포	구름조금	-1/11℃
여 수	맑은뒤흐림	2/10℃
나 주	맑음	-3/12℃
완 도	구름조금	0/11℃
구 례	맑음	-4/12℃
해 남	구름조금	-3/13℃
장 흥	구름조금	-4/13℃
순 천	맑음	0/13℃
영 광	구름조금	-3/10℃
진 도	구름조금	-2/11℃
전 주	구름조금	-3/10℃
군 산	구름조금	-2/8℃
남 원	구름조금	-6/10℃
흑산도	구름조금	3/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1.0~1.5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4:25 16:38	09:40 21:59
여수	11:18 23:34	05:00 17: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 씨						
최저/최고	3/7	-1/4	-4/2	-5/0	-6/1	-4/3

전남교육청 나주병원에 병원학교 개설

3월 부터 1개 학급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국립나주병원에 병원학교를 개설한다.

이 학교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개설되며, 국립나주병원에 1학급이 운영된다.

나주 남평중학교 특수학급으로 편성될 병원학교에는 3개월 이상 나주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20여명 중학생이 수업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장기결석에 따른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등이 불가피하다.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병원학교에서 인터넷 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남평중은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해 학생교육과 지도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학교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 받은 다음 남평중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면 된다.

전남지역에는 2006년 전남대 화순병원에 초등과 중학교 과정인 병원학교 '여미사랑'이 처음 개설돼 운영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